환란 10년

上 양극화·저성장 그늘

올해로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10년이 됐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었던 외환위기는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왔다.

10년전 전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외환위기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눈물겨운 희생과 자구노력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모범적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등 세계경제의 표준에 맞는 경제체제를 다시 수립하는 동안 한국사회는 과거처럼 10%대를 넘나드는 성장률 잔치를 더는 경험할 수 없게 됐고 철저히 효율위주로 재편되는 경제시스템은 극단적 양극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잉태했다.

'수출大國' 우뚝 섰지만 더 팍팍해진 서민살이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사태 이후 금모으기 운동 등 눈물겨운 희생과 자구노력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켰지만 묻닫는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극단적 양극화라는 질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업들 성장서 안정으로…설비투자 줄어

중산층 몰락하며 내수 침체·가난 대물림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외환위기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불러 기업 체질을 전반적으로 견실하게 바꿔놨지만 성장률 하락 속에 일자리 창출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1970~1980년에 연평균 7.0%, 1980~1990년에 8.4%, 1990~1997년에 7.0%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2006년에는 4.5%로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단기실적 향상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다. 대우 등 차입위주의 공격적 확장 투자를 하던 재벌들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은 재무건전성 향상 위주로 경영방식을 바꾸게 되고 설비투자에는 소홀하게 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연평균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두환 정부(1983~1987년) 14.9%, 노태우 정부(1988~1992년) 12.1% 등 두 자릿수를 이어오다 외환위기를 맞게 된 김영삼 정부(1993~1997년) 시절 7.9%로 떨어진 뒤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절에는 0.6%로 급감했다.

외환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난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2003~2006년)의 연평균 실질 설비투자 증감률은 3.9%로 다소 회복됐으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다음달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높은 성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에 못미치고 있지만 후보들은 6~8%까지 매년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세우는 다양한 비전을 보면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양극화**=박 모(49)씨와 그 가족의 삶에서 외환위기는 '내리막'의 시작이었다. 광주 출신의 박 씨는 1980년대 중반 H상사에서 10여년간 일하며 영업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잡고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 가정을 일궜다. 그러나 H상사는 외환위기 당시에 부도를 맞았고, 결국 박 씨도 일자리를 잃었다. 잠시 친구가 경영하는 중소 건설회사에서 영업관리를 맡았으나 이 회사 역시 환란의 파고에 문을 닫았다.

1999년 광주로 귀향한 박 씨는 전산업무 경력만 믿고 명예퇴직금으로 PC수리점을 열었다. 당시 체인형 PC수리점은 많은 퇴직자들이 뛰어들어 소액 창업의 주류를 이뤘던 업종이었다. 그만큼 비슷한 가게들이 넘쳐났고, 박 씨는 2년도 채 되지않아 사업을 접었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는 지난 200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거동조차 힘든 상태다. 현재 연로한 양친까지 6명의 박 씨 가족은 부인이 학생 과외로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 10여평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결국 불과 10년 사이 박 씨 가족은 안정된 중산층에서 생활고에 찌든 빈곤층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중산층의 몰락은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양극화의 병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는 내수침체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등을 복합적으로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양극화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발생했던 소득격차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도시가계수지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되는 가구소속 인구의 비율)은 작년에 16.42%로 전년의 15.97%에 비해 0.45%포인트 올라갔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은 없었다.

연도별로는 1999년 15.01%, 2000년 13.51%, 2001년 14.10%, 2002년 13.63%, 2003년 14.88%, 2004년 15.97% 등이었다.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다소 떨어지다 2003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소득 불균등 현상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에 따라 학생 개인의 학업성적, 대학입시 등과 이에 따른 미래 예상소득이 결정되는 현상이 벌써 뚜렷하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득 양극화는 확대 재생산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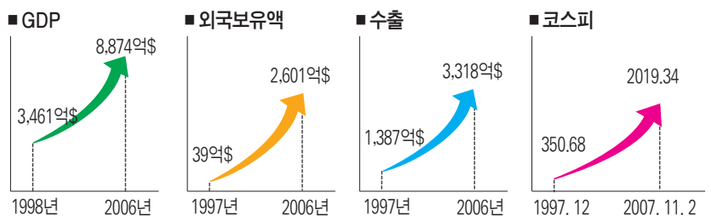
아울러 양극화는 소득 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정보기술기업-전통기업 등 산업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개방과 경쟁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계속 번창하지만 경쟁력없는 분야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됐다.

외환위기 이후 질적으로 달라진 고용 시스템도 양극화의 골을 깊게 했다. 환란 이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했고 이는 능력 위주의 미국식 고용체계 수용으로 이어졌다. 이는 같은 기업과 업종내에서의 소득격차를 가져왔다.

해고되는 것은 쉬워도 다시 취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는 공급과잉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개방, 경쟁 중심의 철학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

통계로 본 '換亂 10년'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로 세계 5위

수출 2.4배 늘어 경제성장 '일등공신'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한국경제가 겪은 급격한 변화상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당시보다 2.5배 증가했고 7천달러로 곤두박질쳤던 1인당 국민소득(GNI)도 2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액은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3천억달러를 돌파했고 기업의 실적호전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2,000포인트에 안착하는 등 지표상으로 국내 경제는 성장을 구가했다.

◇**수출호황…부쩍 커진 몸집**=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8년 3천461억달러로 크게 줄었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8천874억달러를 기록했다. 1997년 1만1천176달러에서 98년 7천355달러로 내려앉았던 1인당 GNI도 지난해 1만8천372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도 98년 -6.9%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IT(정보기술) 투자열풍 등으로 99년 9.5%, 2000년 8.5%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약 4.3% 증가세를 유지했다.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외환보유액은 97년 12월 최저 39억달러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경상수지 흑자, 환율 방어비용 등으로 계속 늘어 지난달말 현재 2천60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은 수출이었다. 상품수출(FOB)은 97년 1천387억달러에서 지난해 3천318억달러로 2.4배 늘어났고 상품수지도 98년 이후 매년 100만~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여행.유학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98년 이후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수지는 환율이 급등한 98년 소폭 흑자(10억달러)를 냈지만 이후로는 매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10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97년 12월 1천962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98년 연평균 1천395원, 99년 1천189원, 2001년 1천291원으로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들어 세자릿수 대를 회복했다.

◇**급속한 자본시장 개방**=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전면개방 등으로 자본시장도 급속히 발전했다. 코스피는 97년 12월 최저 350.68포인트로 떨어진 데 이어 이듬해 6월16일 87년 이후 최저점인 280포인트까지 추락했다가 10년만에 2,000포인트에 안착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호전과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증시 상승의 배경이 됐지만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큰 힘을 실어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시가총액 기준)은 99년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완전 개방되면서 급속히 늘어 지난달말 32.49%에 달하고 있으며, 12월 결산법인의 외국인 배당금도 2001년 1조2천51억원에서 작년 5조3천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 역시 최고 80%대에 이르고 있다. 작년말 기준 신한금융지주 58.9%, 하나지주 80.21%, 국민은행 82.88%, 대구은행 66.56%, 부산은행 56.06% 등 대부분 은행에서 외국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DP 대비 외국인투자 총잔액도 2001년 52%에서 지난해 73.4%로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입김이 강해졌다. 〈경제부〉

LC타워(주)
☎(代)972-8004, 핸.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유명메이커 운집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
■병의원 임대 50~250평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
■사무실 임대 27~400평
사업 동업자 구함
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전화 주십시요!
부동산 교환 환영
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환영
- 중개업자 중개 환영 -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매
·충장로 대지 75평 5층건물 2억/1,700만 21억
·금남로 문화전당옆 대로변 5층 1억5천/900만 20억
·전대후문 대로변 75평 3층 8천만/800만 16억
·학동 15m×15m코너 대지 50평 5층 2천5백/270만 3억
·황금동 한전약국근처 89평 2억/900만 20억
·광산구 구 도청옆 112평 단층건물 10억
·조대 대로변 대지 226평 단층 평당350만원
·금호동 종원아파트옆 대로점 330평 단층 당400만
토지매매
·운림동 신라예식장앞 대로점 480평 당200만(전체전용권)
·주월동 참미아파트앞 대200평 당250만
·광·송간 공항진입역 옆 대로점 1,400평 당100만
·봉선동 25m 도로점 700평 당 300만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800평 당200만
·운남동 삼성아파트 후문앞 코너 192평 당200만
·문흥동 개발제한구역 임야 1만평 당1만5천
·도천동 60m 도로개설중 옆 자연녹지 5천평, 2천평, 당65만
·선암동 호대옆 대로변 1,300평 당150만
·선암동 호대옆 1,000평 당90만
·지산동 녹지 1,100평 당 36만
·선교동 임야 4만평 당8만
·광산구 덕림동 관리지역 3,200평 당6만
·화순 도곡 임야(야산)3만평 당1만
·화순 도곡 관리지역 3천평 당6만
·화순 도곡은천 인근 관리지역 2만평 당10만
·화순 남면 계곡점 관리지역 6만평 당1만원
·담양읍 임야(묘집적합)2,700평 당6만
전원주택
·운림동 성촌부락 대지 160평 당130만
·운림동 녹지 340평 당30만
·운림동 대지 280평 당50만
·화순 남면 한옥 대지 200평 4,000만
·화순 남면 대지, 전 한옥750평 1억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700평 당30만
기타부동산
·화순 한천 급전저수지 위쪽 임야 6만6천평 당7천원
·화순 계곡점 임야 14만평 당4천원(임도개설, 가로수식재)
·화순 남면 계곡점 주택1동 3천평 당3만
·화순 남면 임야 3만평 당 5천원
·장흥 회진 바닷가점 황토주택 4천평 당10만
※광주인근 관리지역 임야, 전, 답 구함
※황토주택 동호인을 모집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 물
◉주월동 5억 병원의원매매 대65P 건150P 지상4층 즉시 입주가능
◉7억9천 빌딩 급매 호남대 부근 광산구 서봉동 대270P 건287P 보1억9천 월450만원
◉13억9천 빌딩 20×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건320P 보3억3천 월900만
◉12억점포 8칸 빌딩부지 30×6m코너 보증금 1억 월560만원 포함
◉상업지역 13억 빌딩 대140P, 건510P 보증금 2억 월세850만원
◉17억5천 1층 점포 12칸 빌딩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6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P 건890P 보증금 5억 월1800만원
◉41억 상업지역 빌딩 대200P 건1,100P 보13억 월세2,000만원
◉47억 빌딩 대600P 건1000P 보10억 월세3000만원 융자20억 포함
◉120억 공장부지 공업지역 12,000P 현재 공장 운영중
◉13억고시원 대110P 건300P 룸60개 월세1,500만원
주유소 전문중개
◉9억 주유소 급매 대300P 35m도로변
◉11억5천 시외 주유소 기사식당 카센타 포함 2000P 장사잘됨
◉13억5천 시내 주유소 급매 대400P 일매출 800만-900만원
◉LPG충전소, 주유소부지 광산구 35×10m코너 P당260만원 신개발지역
병원부지 전문중개
◉360P P당 750만원
◉210P P당 900만원
◉550P P당 650만원
땅
◉정비 공장부지 600P 상업지역 35m 도로점 P당 270만원
◉수완지구 상업지역 240P P당650만 대로변
◉쌍암동 310P 상업지역 20m도로점 P당390만원
◉골프연습장 부지 8,000P 자연녹지 북구 P당 50만원
◉팬션부지 섬진강 5,000P 전원주택부지,별장,연수원부지 P당 7만원
◉제1종주거지역 1,000P P당100만원 20m도로점
◉담양 임야 15만P P당 1만원
◉관리지역 임야 7000P 담양 P당3만7천원 진입로 있음 경사도 15°
◉오피스텔부지 300P 전대후문에서 6~7분 도보 P당175만원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P 남향 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실성홈플러스에서 10분거리 P당4만원
◉동림동 생산녹지 800P 매매8억
◉담양 임야 25만P P당 3,000원
◉관리지역 2000P 2차선 도로점 임야 P당 11만원
◉광산구 삼거동 관리지역 2000P P당 10만원
◉태양광발전소 부지 10억 보성 회천 25,000P 남향
◉대덕면 7,000P 3억7천 고속도로주변
◉골프연습장부지 3,000P P당 120만원 30m 도로점
◉암자부지 2,700P P당 7만원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 500P
APT1800세대 마트겸 목욕탕
대120P 건270P 현재 주인직영중 매15억
급매 시외광 180만P
• P당 4만원 목장용지 및 잡종지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代)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1. 운천저수지 신축8층건물 긴급매매
대지:243평 건물:지상6층[신축건물] 병원,대형식당,노래방,카페,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물임. 토지 바로 옆에 주변 아파트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매우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운천저수지 개발등으로 투자가치가 급상승할 곳이 틀림없는 곳임
감정원 감정가격:19억원
긴급매매가:14억원
2. 월산동 [구,남강호텔] 긴급 매각
대지:90평 건물:지하1층[유흥노래홀] 지상8층:현, 모텔로 이용중임
월산동로타리 농협 바로뒷편~진봉터널간 도로변소재
사무실, 병원, 모텔, 임대용건물로 건물 리모델링 활용가능한 지역임
감정원 감정가 12억원
긴급매매가 8억5천만
임대가격 : 최신시설로 리모델링 공사 후 모텔로 임대가능
현금투자 최요지
1. 창평 유촌리 임야 4만평 골프장, 무인모텔, 펜션, 수련원 가능 토지 매매가 평당 3만원
2. 록포 신외항 인근토지 약 3천평 긴급매매가 평당 20만원 바다가 보이는 간척지용 토지임
3. 전원주택 신축부지 송정리 등곡가는 길 주거지역 480평 매매가 평당 30만원 전망좋은 토지 즉시 건물 신축가능
AAA급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북동 롯데백화점건너편 도로변 대지50평 2층건물 매매가 2억5천 (은행대출 2억안고 매매가능)
2. 광암교4거리 주유소옆 건물5층 대지71평 임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 적합, 동림2지구 개발 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매가 5억3천(주인사정상 긴급매매)
3. 농성동 상공회의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감정가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잘나가는 건물임
현금투자 최요지 긴급매매
1. 전대후문 도로변 건물6층 매각 전대후문 나악국 도로변 대지80평 건물 지하1층 문구점, PC방, 당구장,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가 보장되는 건물임
2.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상업지역 980평 긴급매매가 평당 400만원 오피스텔, 주상복합, 주차장용지 적합
3. 성업중인 골프연습장 긴급매매 풍암동 제2순환도로변 부근 대지9000평 피3홀 포함 매매가 상담 후 결정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4. 교회, 신축건물 부지 남구 진월동 광주대 입구 대지230평 매매가 평당 250만원 (주인 사정상 긴급매매)

2006년도 광주 남구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10,11,12월 예식, 송년모임 예약접수중
•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뷔페식으로...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